

10.4선언발표 9돐기념 북, 남, 해외 공동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기치밑에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기 위한 10.4선언발표 9돐기념 북, 남, 해외 공동토론회가 10월 6일부터 7일까지 중국 심양에서 진행되었다.

토론회에는 양철식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 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연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북측 대표들과 임성호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공동대표를 비롯한 연석회의 남측추진기획단 대표들, 손헌근 연석회의 해외측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중국, 일본, 미국, 캐나다, 유럽 등 각 지역의 해외동포대

표들이 참가하였다.

토론회장에는 《10.4선언발표 9돐기념 북, 남, 해외 공동토론회 2016년 10월 6일—7일 중국 심양》이라고 쓴 명판과 《조국통일을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따라 자주적으로!》, 《남북공동선언리행으로 평화와 자주통일을 실현하자!》, 《전민족적통일대회합으로 통일의 대통령을 열자!》라는 구호들이 나붙어있었다.

토론회에서는 먼저 이번 공동토론회의 성과적 개최를 축하하는 북, 남, 해외측 대표단 단장들의 축하연설들이 있었다.

이어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 북남관계의 출로를 열어갈데 대하여》라는 주제로 북, 남, 해외대표들의 토론들이

진행되었다.

토론자들은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해결해나갈데 대한 문제,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할데 대한 문제, 해내의 각계층의 다방면적인 접촉과 래왕, 대화와 전민족적인 연석회의를 성사시킬데 대한 문제 등에 대해 발언하였다.

토론회에서는 북남공동선언들을 변함없이 높이 추켜들고 제2의 6.15통일시대,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북남관계개선의 넓은 길을 앞장에서 열어가려는 전체 참가자들의 굳은 각오와 의지를 담은 공동결의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본사기자

공 동 결 의 문

오늘 북, 남, 해외 각계층 대표들은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향한 민족의 리정표인 10.4선언발표 9돐에 즈음하여 북, 남, 해외 공동토론회를 진행하였다.

토론회에서 북, 남, 해외 각계층 대표들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나라의 평화와 통일실현의 원칙과 방도를 밝히고 6.15통일시대를 이루어낸 민족통일의 대강령이며 역사적리정표로 된다는데 대해 확인하였다.

북과 남, 해외의 대표들은 한결 같이 내외반통일세력의 대결책동에 의하여 군사적긴장과 전쟁위험이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각계의 접촉과 교류마저 중단되어 북남관계가 나날이 격화되고있는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하였다.

또한 북남공동선언들을 존중하고 성실히 리행하는 여기에 조성된 현 난국을 타개하고 북남관계를 개선하며 평화와 통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출로가 있다는데 대해 의견을 같이 하였다.

토론회에 참가한 북, 남, 해외 각계층 대표들은 전쟁의 위기를 막고 나라의 항구적인 평화실현과 민족의 화해와 단합, 온 겨레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활로를 열어가기 위한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고수하고 이를 리행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벌려나갈것이다.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이 마련되고 성실히 리행됨으로써 북남관계는 통일지향적인 관계로 확고히 전환되고 민족대단결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서게 되었으며 조국통일운동은 전민족적운동으로 확대발전하게 되었다.

최악의 대결국면으로 치닫는 현 북남관계의 위기를 극복하는 첫걸

음을 무엇보다 쌍방사이에 마련된 귀중한 합의들인 북남선언들을 존중하고 리행하는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는 북남선언들을 부정하면서 그 리행에 장애를 조성하는 모든 행위들을 단호히 반대하고 저지시켜나갈것이며 북남선언들이 낳은 금강산관광과 개성공업지구를 비롯한 6.15시대의 소중한 모든 결실들을 되살려나가기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해나갈것이다.

2. 북남선언들이 제시한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정신을 굳게 견지해나갈것이다.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자는것은 북남선언들의 기본정신이다.

우리는 북남선언들이 제시한 민족자주의 정신을 통일문제해결의 제1원칙으로 굳게 지켜나갈것이다.

또한 북과 남, 해외의 각계각층이 사상과 리념, 정견의 차이를 초월하여 온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것이다.

3. 조국강도에서 전쟁위기를 끝장내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해나갈것이다.

평화가 없이 통일이 없고 평화가 없이 민족의 미래도 없다.

우리는 전쟁을 반대하고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반전평화운동을 적극 전개해나갈것이다.

외세와의 각종 합동군사훈련과 무분별한 무력증강행동을 비롯하여 나라의 평화를 위협하고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모든 군사적대결책동을 반대하여 단호히 맞서 싸울것이다.

4. 해내외 각계각층의 접촉과 래왕, 교류와 연대를 활성화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더욱 높여나갈것이다.

북과 남, 해외의 각 정당, 단체, 인사들사이의 다양한 교류와 연대는 통일운동을 활성화하는 원동력이다.

우리는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여성, 종교 등 각계각층 단체들사이의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하며 다양한 공동행사와 통일회합을 추진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적극 추동해나갈것이다.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개최하는것은 최악의 파국에 처한 북남관계를 전진시키고 조국통일운동을 적극 추동해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우리는 그 어떤 장애와 난관이 가로막아도 북과 남, 해외의 제 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이 참가하는 전민족적통일대회합을 반드시 실현시켜 북남관계개선과 나라의 평화, 자주통일의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열어갈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조직되었거나 조직될 연석회의 준비위원회들의 역할을 높여 다음해에 연석회의를 소집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것이다.

우리는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정당들과 단체, 각계 인사들이 북남선언들의 정신을 지키고 그 실천에 한마음한뜻으로 떨쳐 일어나 하루빨리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제2의 6.15시대를 개척해나가는것을 열렬히 호소한다.

10.4선언발표 9돐기념 북, 남, 해외 공동토론회

2016년 10월 7일

중국 심양

조 국 소 식

전국대학생정보과학기술성과전시회 폐막

전국대학생정보과학기술성과전시회가 폐막되었다.

이번 전시회에는 전국 청년대학생들이 첨단과학기술의 명마루를 점령하기 위한 학습과 과학탐구활동을 활발히 벌려나가는 과정에 이룩한 많은 성과자료들이 출품되었다.

《합리적인 배합비에 의한 연의 직접제련기술》, 《다기능교실지원체계(해설1.0)》을 비롯하여 350여건의 발명 및 소프트웨어제품들이 우수하게 평가되었다.

전시회에서는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리파대학이 우승하였다.

도별순위에서는 함경북도가 특등, 평양시와 함경남도가 1등을 하였다.

폐막식이 12일 과학기술전당에서 진행되었다.

폐막식에서는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단위와 참가자들에게 우승컵과 발명증서, 창의고안증서 등이 수여되었다.

본사기자

자강도에서 북부피해복구전선

자강도에서 북부전선에 대한 지원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북부전선에 대한 지원사업은 곧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애국총정의 사업이라는 관점밑에 도인민위원회, 도농촌경리위원회, 도체신관리국, 도은행 등 도급기관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 탐구동원하여 마련한 출입문, 창문을 비롯한 건구류들을 선참으로 피해지역으로 실어보내었다.

차가평세멘트공장의 노동자, 기술자들은 대중적기술혁신운동으로 설비마다에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여 짧은 기간에 수백의 세멘트를 생산하여 피해복구전투를 힘있게 다그치는데 이바지하였다.

집단지향의 불길높이 도합의 금속공장 로동계급은 증산돌격전으로 복구전선에 절실히 필요한 철강재생산계획을 매일 1.5배로 넘쳐 수행하고있으며 강계은

하피복공장, 회천은하피복공장의 로동자들도 추위가 닥쳐오기전에 피해지역 인민들에게 한벌의 솜동복이라도 더 보내줄 뜨거운 마음안고 수천벌의 솜동복을 생산하였다.

강계시와 회천시, 전천군의 일군들, 근로자들은 친부모, 친형제를 위하는 심정으로 수십종의 건설용자재들과 식량 등 생활필수품들을 성의껏 마련하여 보내주었다.

본사기자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10.4선언발표 9돐을 맞으며 중국 심양에서 진행된 북과 남, 해외의 각계층 대표들의 공동토론회는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인 연석회의를 반드시 실현하여 북남관계의 개선과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전환적국면을 열어가기 위한 우리 겨레의 의지를 다시금 과시하는 계기로 되었다.

북과 남, 해외 제 정당, 단체, 개별 인사들을 망라하는 연석회의를 개최할데 대한 제안은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철저히 부합되며 조성된 현 정세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정당한 애국의 호소이다.

반통일세력의 대결과 전쟁책동에 의해 군사적긴장과 전쟁위험이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각계의 접촉과 교류마저 중단되어 북남관계가 나날이 격화되고있는 현실은 내외의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지금처럼 북남사이에

대화과 접촉, 래왕이 없고 불신과 대결, 전쟁위험수위만이 높아가는 험악한 사태를 방관시한다면 언제 어떤 불상사가 날지 알수 없고 피해를 입울것은 우리 민족 자신이다.

공화국이 지난 6월초 정부, 정당, 단체연석회의를 열고 조국해방 일흔한

선과 해외의 당국, 정당, 단체 및 개별인사들에게 공개편지를 보낸데 이어 해외 각지에서 지역준비위원회들이 결성되는 등 련석회의를 위한 준비사업들이 적극 다그쳐져왔다. 남조선에서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민주로총, 《한국

라느니 뭐니 하면서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개최를 한사코 가로막아나서고있다. 결국 남조선당국의 방해책동으로 남측준비위원회가 나오지 않아 전민족공동준비위원회결성이 지연되는 등 련석회의 개최에는 많은 난관이 조성되게 되었다.

하지만 그 어떤 장애와 난관이 가로막아도 북과 남, 해외의 제 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이 참가하는 전민족적통일대회합을 다음해에 반드시 실현시켜 민족의 화해와 나라의 평화, 자주통일의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열어갈것이라는것이 이번 공동토론회에서 재확인된 온 겨레의 한결같은 의지이다.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겨레의 지향과 요구는 그 누구도 가로막을수 없다. 남조선당국은 겨레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현시대가 무엇을 바라고있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새겨보아야 할것이다.

최진욱

전민족적통일대회합을 성사시키려는 겨레의 의지

뜻을 맞으며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개최할것을 제안한것도 조성되고있는 엄중한 사태를 바로잡고 북남관계와 나라의 통일위업을 힘있게 추동하기 위한 대책적문제들을 협의해결해가려는 적극적인 의지와 성의있는 노력의 산물이다.

그동안 평양에서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 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련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가 조직되어 남조

로총》, 전국농민회총련맹, 청년련대를 비롯한 각계층 단체들과 인사들이 련석회의개최를 적극 지지환영하는 기자회견들을 진행하고 성명들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유독 남조선당국만은 공화국의 제안을 《비핵화에 대한 의사표명도, 진정성도 없는 제대화할 때가 아니며 오직 제재와 압박만이 필요하다.》느니,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위장평화공세》

가장 우월한 교육제도의 빛발아래

누구나 알찬 열매를 보면 감탄을 금치 못한다. 그러나 그 열매를 맺게 하는 뿌리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공화국의 교육제도를 뿌리에 비유한다면 알찬 열매는 바로 훌륭한 교육제도속에서 배우며 자라난 수많은 인재들이라고 할수 있다.

매개 나라의 교육제도의 우월성은 그 나라에 얼마나 많은 인재가 있으며 그들의 실력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데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오늘 공화국의 교육제도는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떨쳐가는 수많은 인재들을 키워내고있다. 그 인재대군에 의해 공화국의 문명강국건설은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갖은 제재와 압살책동속에서도 공화국이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비약하며 솟구치고있는 놀라운 현실도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인재들의 역할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공화국은 나라의 발전을 추동하는 인재문제를 자기 힘으로 훌륭하게 해결하였다.

《우수한 과학기술인재들을 수많이 가지고있는 조선의 발전잠재력은 대단히 크다.》

몇해전 9월에 열린 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에 참가하였던 튀르키예 메르트 벨기 이슬람유한회사 사장 케퍼 게르체크가 한 말이다. 그가 말한 공화국의 커다란 발전잠재력은 바로 우월한 교육제도의 결과라고 할수 있는것이다.

공화국은 오래전부터 세상사람들로부터 《교육의 나라》로 불리우고있다. 세상에 나라가 많지만 국가가 전국의 수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을 대학에 이르기까지 무료로 교육시켜주는 나라는 오직 공화국뿐이다. 이 우월한 교육제도는 저절로 꽃피는것이 아니다.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정치를 펼친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따뜻한 보살핌속에 오래전에 세상에 돌도 없는 전반적 무료의무교육제도가 실시되고 전민이 배우는 정연한 교육체계가 세워지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나라가 것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후대들을 위한 무료 교육제도를 변함없이 실시하

록 하시고 선군령도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수많은 대학들과 학교들을 찾으시어 후대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도록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기울이시였다.

나라의 교육발전을 위해 바치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은 오늘 이 땅우에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하여 더욱 빛을 뿌리고있다.

그이께서는 조선소년단창립 66돐 경축행사에도 참석하시어 소년단원들의 밝은 미래를 축

복해주는 뜻깊은 연설도 하시였고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제를 새로 실시하도록 하시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교육발전의 휘황한 전망을 열어주시였다.

평양창전소학교,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와 같은 아이들의 교정과 야영소도 훌륭히 건설하도록 하시고 육아원, 애육원의 원아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새 세대들이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를 부르며 미래의 역군으로 씩씩하게 자라도록 다심한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평범한 교육자가정을 찾으시어서는 그들과 허물없이 무릎을 같이 하시고 이 가정은 조국의 미래를 맡아 키우는데 량심을 바쳐가는 애국가정이라고 높이 내세워주시며 사랑의 촉배도 부어주시고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에 완공된 그날에는 몸소 현장에 나오시어 교원, 연구사들의 새집들이도 축하해주신 다심하고도 뜨거운 사랑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교육사업을 얼마나 중시하고 내세우시는가를 가슴 뜨겁게 느끼게 한다.



그이의 숭고한 후대관, 미래관은 제13차 전국교육일군대회에 보내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지라》의 자자구구에도 그대로 어려있다.

우리는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을 세계를 내다보는 주체적인 립장과 안목에서 사회주의교육의 본래를 확고히 고수하면서 세계적인 교육발전추세와 좋은 경험들을 우리의 현실에 맞게 받아들이고 우리 식으로 발전시켜 교육에서도 당당히 세계를 앞서나가야 한다고 하시던 절세위인의 뜨거운 당부.

그이께서는 얼마 전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70돐에 즈음하여 대학 교직원, 학생들에게 보낸 서한에서도 첫 인민의 대학이며 주체과학교육의 최고전당인 이 대학을 세계일류급의 대학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휘황한 앞길도 밝혀주시였다.

나라의 발전과 민족의 장래운명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국가적사업인 교육사업의 선차적이며 빠른 발전을 위해 그이께서는 더운 날, 추운 날을 가리지 않으시고 헌신의 낮과 밤을 이어가고계신다.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고상한 정신도덕적품고와 높은 과학기술적능력, 풍부한 문화적소양을 지닌 미래의 주인공들로 키우도록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의 령도에 의해 새 세대들은 나라와 인민을 사랑하는 참다운 애국자로, 과학기술로 부강조국을 떠받드는 귀중한 인재들로 씩씩하게 자라나고있다.

최성남

현지지도에 비친 위인의 거룩한 세계

과학기술발전을 언제나 첫자리에 놓으시고

과학과 기술의 발전수준은 나라와 민족의 번영과 장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이다.

지금 공화국에서는 과학기술의 비약적발전을 다계단으로 이룩하고 남들이 10년, 20년이 걸려서야 달성할수 있는 과학기술의 성과를 불과 짧은 시일에 기적적으로 달성하는것과 같은 눈부신 기적들이 련이어 일어나고 있다.

과학기술을 나라의 존엄과 민족의 번영을 위한 중대사로 여기시고 과학기술의 힘으로 사회주의강국의 승리를 반드시 안아오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서이다.

언제인가 그이께서는 과학연구사업은 생년길을 헤쳐나가는것이나 같다고, 우리는 나라의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과학기술발전에 힘을 넣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자기것이 없으면 남에게 구걸의 손을 내밀어야 하며 지어는 예측의 쓴맛까지 보아야 하는것이 오늘날 세계의 팽혹한 현실이다.

강자가 약자를 보살피주고 동정해주고 도와준레는 력사상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나라의 과학자, 기술자들을 굳게 믿으시고 과학기술발전에서 자력자강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끄신다. 남들이 엄두를 내지 못

하는것을 만들어내겠다는 야심만만한 배짱을 가지고 주체적인 관점과 립장에서 기성기술문헌에도 없는것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실현방도를 가르쳐주시 원수님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밑에 이 땅에는 실로 눈부신 과학기술성품들이 련이어 창조되였다.

자체의 힘, 자체의 기술로 공화국은 최첨단과학기술의 종합체인 인공지구위성을 우주에 보란듯이 쏘아올렸고 비행기도, 지하전동차도 자기 힘과 기술로 만들어내였다.

최근에는 생산기술도입과 설비제작 및 운영이 극히 어려워 세계적으로도 발전된 몇개 나라의 독점물로 되고있는 아크릴계철강을 자체로 생산해내는 기적을 이룩하였으며 현대적으로 일떠서고 개진되는 공장들에는 국산화된 첨단설비들이 즐비하게 늘어섰다. 공화국에서 현대화는 곧 국산화로 되고있다. 그 위력까지 보아야 하는것이 오늘날 세계의 팽혹한 현실이다.

과학기술의 롱마, 과학기술의 기관차!

과학을 중시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늘하시는 이 말씀처럼 공화국의 과학기술은 그야말로 기관차처럼, 롱마처럼 힘차게 질주하고있다.

우리 인민의 모든 꿈이 실현된 강성국가를 일떠세우자면 우리 나라를 파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과학자, 기술자들을 제일 귀중한 보배로 여기시며 온갖 사랑과 배려를 다 돌려주시는 감동깊은 이야기들은 헤아릴수 없이 많다.

지난 2014년 정월 국가과학원을 현지지도하신 원수님께서서는 자기들을 위해 하루반을 꼬박 바치신것이 너무도 고마와 책임일군이 《과학자들을 위해 바치신 하루반》이라는 글의 제목까지 생각해둔것을 아시고 자신께서 왜 과학자들을 하루반만 생각하셨는지 아니라 일년내내 생각한다고 하시며 환하게 웃으시였다.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은 금방석에 앉혀준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의 과학자들에게 금방석과 같은 집을 지어주어 거기서 생활하게 하자고 하시며 그이께서는 황홀한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과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은하과학자거리, 위성과학자주택지구, 미래과학자거리를 건설하도록 하시였다.

우리 과학자들을 업어주고싶다고, 이 세상 모든것을 다 안겨주고싶은 심정이라고, 과학자들에게는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시며 내세워주고 보살피주시는 그 사랑에는 과학기술로 이 땅우에 사회

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시려는 그이의 높은 뜻이 력력히 어려있다.

그 높은 뜻에 받들려 평양 대동강의 쭉섬에는 전민학습의 대전당인 과학기술전당이 웅장하게 건설되어 과학의 섬으로 희한하게 변모되였다.

훌륭히 완공된 과학기술전당을 찾으시였던 그날 원수님께서서는 우리가 로력이 남아돌아가고 자재가 많아서 과학기술전당을 일떠세운것이 아니라 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과학의 섬인 쭉섬을 돌아보면 과학기술발전을 강성국가건설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대사로, 나라의 진도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여기고 과학기술발전에 큰 힘을 넣고 일관하게 밀고나가는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잘 알수 있을것이라고 하시였다.

남조선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최첨단의 경지에 올라있는 공화국의 과학기술에 대해 소개한 글이 실린적이 있는데 글에서는 20세기는 굴뚝산업시대, 21세기는 정보산업시대이다. 북은 순차적인 과학기술을 단숨에 뛰어넘어 21세기 정보화산업으로 비약하였다고 썼다.

과학기술강국건설의 희망찬 포부와 의지를 가지고 만리마의 정신으로 신심드높이 나아가는 공화국의 앞날은 밝고 창창하다.

김창근

전 재미동포전국련합회 고문 선우학원 선생의 유해를 신미리에 국렬사릉에 안치하는 의식 진행

조국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모든것을 다 바친 재미동포전국련합회 고문이었던 선우학원 선생의 유해가 신미리에국렬사릉에 새로 안치되였다.

조국통일의 찬란한 구성이시며 숭고한 도덕의리의 최고화신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조국과 민족을 위한 애국의 한길에서 값높은 삶을 빛내신 전 재미동포전국련합회 고문 선우학원을 영생의 언덕에 세워주시였다.

선우학원 선생은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러차레에 걸쳐 선생을 접 흠모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미국땅에서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해외동포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한 애국애족의 한길을 곳곳이 걸은 명망높은 해외통일운동의 선각자이며 원로였다.

선생은 미국사회와 동포들속에 조국을 바로 알

리고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과 조국통일방침들을 적극 지지하며 미국의 남조선강점과 남조선보수 《정권》의 파쇼독재를 신랄히 비판하는 수 많은 도서와 논문집필, 강연활동을 정력적으로 벌리였으며 적대세력들의 온갖 박해와 방해책동에도 굴하지 않고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조국통일위업실현에 헌신하였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여러차례에 걸쳐 선생을 접 흠모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미국땅에서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해외동포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한 애국애족의 한길을 곳곳이 걸은 명망높은 해외통일운동의 선각자이며 원로였다.

선생은 미국사회와 동포들속에 조국을 바로 알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죽어서도 조국의 품에 안기고 싶어하는 선생의 소원을 헤아리시어 선생의 유해를 조국의 해방과 사회주의건설, 조국통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다 희생된 렬사들과 나란히 이땅 신미리에국렬사릉에 안치하도록 하시어 선생의 고귀한 생애가 민족사에 길이 남도록 은정깊은 사랑과 배려를 베풀어주시였다.

관계부문 일군들과 유가족, 공화국에 체류하고 있는 해외동포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의식에서는 연설이 있었다.

묘에 렬사의 유해가 안치되였다.

참가자들은 렬사의 묘에 화환과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그를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본사기자



민족교육의 화원은 영원히 만발할것입니다

재일조선인중등교육 실시 70돐에 즈음하여

우리 재일동포사회에서 중등교육이 실시된 때로부터 어언 70년세월이 흘렀습니다.

조국해방의 환희와 더불어 시작된 재일조선인운동의 성스러운 이들과도 같고 모진 시련과 광풍을 이겨내며 세계에 자랑쩍힌 승리의 역사와도 같은 우리의 민족교육입니다.

공지와 자부심이 넘쳐나는 그 70년사를 더듬어보느라니 해빛을 주고 자양분을 주시어 우리 민족교육을 세계 해외교포교육의 본보기로 내세워주시고 창창한 미래를 펼쳐주시는 절세의

주체적해외교포교육의 본보기로

우리 재일동포들이 민족교육에 대하여 생각할 때면 누구나 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끝없는 고마움으로 눈시울을 뜨겁게 적시곤 합니다.

돌이켜보면 민족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아오신 조국해방을 한없는 기쁨속에 맞이한 1세대들은 자녀들에게 우리 말과 글을 배워주고 공부 시키고 싶었던 간절한 소망을 실현하기 위해 일본땅 이르는 곳마다에 국어강습소를 내왔습니다.

해방후 동포들의 지향을 담아 재일조선인초등교육이 실시된데 이어 1946년 10월 5일에는 도표조선중학교의 창립으로 재일조선인중등교육의 실시를 세상에 선포하였으며 고급학교의 병설로 중등교육체계를 완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민족교육사업으로부터 시작된 재일조선인운동의 실태를 깊이 헤아려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그해 12월 13일 친히 강령적서한 《재일 100만 동포들에게》를 보내주시어 재일동포들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었으며 1948년 12월 2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재일조선인경축단 성원들을 만나주신 자리에서 재일조선아동들을 우리 말과 글로 교육하며 조선민족의 공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자주독립국가의 장래를 걸머지고 나갈수 있도록 키워야 한다고 간곡히 가르치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안은 경축단성원들은 물론 우리 재일동포들모두가 민족교육사업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민족교육사업은 내외반동들의 말살책동으로 말미암아 일시적난관을 겪게 되었으나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로선전환방침에 따라 1955년 5월 25일 참다운 해외교포조직인 총련이 결성된 때로부터 곧바른 궤도를 따라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총련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은총속에 결성 이듬해인 1956년 4월 10일에 조선대학교를 창립함으로써 초급학교로부터 대학교에 이르는 민주주의적민족교육체계를 갖추고 민족교육사업의 새로운 발전단계를 열어놓았습니다.

당시 조국의 정세는 매우 복잡했고 허리띠를 조이며 전후복구건설을 해야 했던 나라의 경제형편은 몹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한푼의 돈이 귀하였던 것처럼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공장을 한 두개 못 짓는 한이 있더라도 이국땅에서 고생하는 동포들에게 아이들을 공부시킬 돈을 보내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세계재정금융력사에 있어본적 없는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이라는 새로운 국가예산항목을 내오도록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그 하해같은 은덕을 우리 어찌 잊을수 있겠습니까.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소식이 《조선민보》에 실린 날 당시 도표조선중급학교 교장선생이 운동장에 모인 2000명의 교직원, 학생들앞에서 《나

위인들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에 솟구치는 격정을 금할수 없습니다.

민족교육사업과 더불어 흘러온 40여년의 나날에 저자신이 심장으로 체득한 진리가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생명수로 역세계 뿌리내리고 애족애국으로 그 줄기가 든든한 우리 민족교육의 화원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어 영원히 만발할것임을 후세들에게 말하고싶어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라에서 돈을 보내 왔습니다. 김일성원수님께서 재일동포자녀들의 교육사업을 위하여 1억 2000여만원의 막대한 돈을 보내주셨습니다.》라고 흥분된 목소리로 웨치자 듣고있던 동포들이 일시에 《김일성원수님 만세!》의 환호성을 울리며 서로 얼싸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일동포들 누구나가 격찬한것처럼 그것은 정녕 위대한 수령님께서만이 주실수 있는 사랑의 생명수였으며 그 생명수가 있어 우리 민족교육의 뿌리는 더욱 역세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생전에 총련에서 제일 잘하는 일이 우리 학교를 세우고 아이들을 조선사람으로 키우는것이라고 하시면서 1973년 8월에 밝혀주신 《총련교육일군들의 임무에 대하여》를 비롯하여 민족교육사업의 강령적인 지침들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어찌 그분이겠습니까. 교편물들과 교구비품, 민족악기를 비롯한 수많은 선물들도 보내주시고 것처럼 분망하신 속에서도 조국을 방문한 우리 교육일군들과 동포학생들을 따듯이 만나주신 위대한 수령님. 총련에서 민족교육사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시며 민족교육사업은 재일동포들이 일본사람으로 동화되지 않고 자기의 민족성을 지키도록 할 사업이며 민족적애국운동을 더 잘 벌려나가기 위한 사업이라고 그 중요성을 거듭거듭 강조하시고 우리 동포학생들의 공연을 보아주시 때면 학생소년들이 노래도 잘 부르고 춤도 잘 춘다고 하시면서 일본땅에서 조선민족의 넋을 지켜가고있는것은 총련의 크나큰 자랑이라고 그리도 만족

재일조선인운동의 생명선으로

언제인가 일본을 돌아본 아메리카 주의 한 정치인은 일본사회평조를 두고 타민족을 동화시키는 《독바람》이라고 평한바가 있습니다.

다른 민족에 대한 배타와 질시가 그토록 지독한 일본땅에서 우리 민족교육이 승승장구해올수 있는것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친아버이사람이 있었기때문입니다.

지금도 저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1994년 10월에 우리 총련의 민족교육사업과 관련하여 주신 귀중한 가르치심을 잊지 못합니다.

그때로 말하면 우리 겨레가 천만뜻밖에도 민족의 대국상을 당한 후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반동들이 공화국을 압살하려고 피눈이 되어 날뛰던 때였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지켜내야 했던 것처럼 준엄한 시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과 함께 우리 총련의 먼 장래까지 내다보시며 깊이 마음쓰실줄은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조국일군들에게 총련에서 다른 사업도 다 중요하지만 민주주의적민족교육사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총련의 민족교육사업은 애국위업의 대를 이어나갈 총련일군들과 동포군중핵심

구 대 석

해하신분이 바로 위대한 수령님이시였습니다.

따뜻이 보살펴주시고 역세계 지켜주시는 그 고마운 품이 있어 총련과 우리 동포들은 일본당국의 부당한 《외국인학교법안》을 일곱번이나 폐안으로 몰아넣고 모든 학교들의 학교법인인가를 획득하는 자랑찬 성과도 거둘수 있었으며 바람채찬 이역에서 민족교육의 화원을 아름답게 꽃피울수 있었습니다.

하기에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의 우월성을 힘있게 과시하고있는 우리 총련에 대해 세상사람들은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다.

1973년 7월 로므니아에서 세계교직원조합련맹 제10차대회가 진행되던 나날 대음악무용서사시 《조국의 해빛아래》와 대집단체조 《수령님께 드리는 영광의 노래》를 찍은 영화를 본 외국의 대표들은 앞을 다투어 우리 재일본조선인교직원대표를 찾아와 《당신들의 조직이 한 나라도 감히 해내지 못하고있는 일을 하고 있다. 정말 놀라움을 금할수 없다.》라고 하면서 총련의 민족교육은 세계적인 모범이고 본보기라고 격찬하였습니다.

우리 민족교육은 년대와 년대를 이어 그 자랑스러운 면모를 내외에 더욱 힘있게 과시했습니다.

1990년대초에 독립국가협동체 조선통일총진위원회(략칭 《아소크》)대표단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 살고있는 조선동포들은 우리 학교들을 돌아보고 학생들의 예술공연도 관람하면서 교육수준도 높고 아이들의 모습이 하나같이 밝고 씩씩하다고, 총련이 하는 민족교육은 세계적인 본보기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세계해외교포교육의 본보기! 불리불수록 가슴뿌듯해지고 한없는 고마움에 눈시울이 뜨겁게 젖어드는 그 고귀한 부름은 정녕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여 지니게 된 우리 재일동포들의 무한한 긍지이고 자랑입니다.

진정 위대한 수령님은 주체적해외교포교육의 시원을 열어주시고 그 빛나는 본보기를 마련해주셨으며 대를 두고 지켜가야 할 고귀한 애국유산을 남겨주신 재일동포들의 영원한 아버이이십니다.

을 키워내는 재일조선인운동의 생명선이며 총련의 존망과 애국운동의 성패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라고 교시하시었습니다.

미제에 편승한 일본반동들의 반공화국, 반총련광풍이 사납게 불어칠 때 재일조선인운동의 생명선으로서의 민족교육의 지위를 보다 명백히 밝혀주시고 민족교육사업을 조직건설과 애국활동의 출발점으로 정해주신 위대한 장군님.

이날의 가르치심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민족교육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모두의 심장속에 더욱 깊이 새겨주었습니다.

새 세기 재일조선인운동발전의 절박한 요구에 맞게 민족교육사업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한없이 웅심깊은 사랑과 눈물겨운 헌신으로 그 생명선을 굳건히 지켜주고 보살펴주시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조국일군들에게 총련에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는 문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주신 제도와 전통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기간을 변경시키거나 그 량을 줄이지 말고 수령님께서 계실 때와 똑같이 보내주어야 한다고 간곡하게 가르쳐주시었습니다.

그 사랑속에 와닿은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받아안았을 때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비롯한 우리모두는 위대한 수령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민족교육을 생각하시고 새 세대 동포자녀들을 생각하시는 장군님의 은정이 너무도 고마와 걱정의 눈물을 흘리었습니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할 때 조국의 형편은 얼마나 어려웠고 정세도 얼마나 준엄했습니까.

하지만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변함없이 보내주시고 민족교육의 질적수준을 높일수 있게 조국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도록 해주셨으며 우리들이 조국을 방문하였을 때에는 친히 만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위대한 장군님.

그 사랑속에서 저 한사람만이 아닌 수많은 교육일군들이 조국을 방문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만나뵈옵고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을 지니었으며 공화국로력영웅으로, 학위학직소유자로, 인민교원, 공훈교원으로 자라나 민족교육의 교단을 역세계 지켜올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일본반동들이 총련의 민족교육을 탄압하려고 책동할 때마다 그것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명확한 방도를 제시해주시고 조국의 강력한 보호로 우리 총련과 동포들의 투쟁에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시었으며 세계 진보적인민들이 적극 지지성원해나서도록 해주셨습니다.

일본당국이 우리 민족교육을 말살하자고 그렇게도 악랄하게 책동하였지만 없애기는 고사하고 민족교육이 날을 따라 승승장구해온것은 바로 어릴 때 매일수록 더욱더 굳건히 지켜주고 보살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품이 있었기때문입니다.

70년의 장구한 기간을 통하여 우리 총련의 민족교육은 재일동포자녀들에게 주체성과 민족성을 기본으로 현대과학지식을 계통적으로 배워줌

창 창 한

오늘 일본반동들의 악랄한 방해책동속에서도 우리 총련의 민족교육사업이 활력에 넘쳐 힘차게 전진하고있는것은 이 사업을 재일조선인운동의 생명선으로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기때문입니다.

우리 교육일군들은 지난해 총련결성 60돐을 맞으며 총련과 재일동포들에게 보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역사적인 서한에 접했을 때 정말 크나큰 격정에 휩싸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서한에서 《민족교육사업을 총련의 중심과업으로 변함없이 틀어쥐고나가야 합니다. 총련에서는 민족교육사업에서 주체를 세워 조국애와 민족성을 심어주는데 주력하며 지식경제시대에 맞게 교육내용과 방법을 개선하여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과시하여야 합니다.》라고 가르쳐주시었습니다.

구절구절마다에 담겨진 그 깊은 뜻을 되새겨볼수록 재일조선인운동의 생명선인 민족교육사업을 총련의 중심과업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기를 바라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의도가 가슴에 뜨겁게 안겨왔습니다.

하기에 한해가 다 저무는 지난해말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중등교육 실시 70돐과 조선대학교창립 60돐이 되는 올해에 민족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고 2016년 새해축전에서도 새해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속에서 성장한 총련의 위용을 세계 만방에 더욱 힘있게 펼쳐나가야 할 역사적전군의 해라고 하시면서 민족교육사업에 큰 힘을 넣을데 대하여 다시금 강조해주셨습니다.

으로써 후대들을 지덕체를 겸비한 민족인재로 육성하는 훌륭한 교육내용과 교양방법을 갖춘 세계에 자랑할만한 교육체도로 발전하였습니다.

민족교육의 가장 큰 공적은 지난 70년간 수많은 졸업생들을 내보내어 민족의 대, 애국위업의 대를 확고히 담보한것입니다.

또한 민족교육사업을 활성화하는 과정에 동포사회를 단합시키고 총련조직을 강화하며 애족애국사업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가는데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2006년 10월 1일에 진행된 중등교육 실시 60돐기념 재일동포대축전이 그것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4.24교육투쟁의 넋이 새겨져있고 우리 재일동포들이 제일 많이 살고있는 김끼지방의 중심지에서 《자랑하고 빛내이자! 우리 교육》의 주제로 진행된 이날의 대축전은 3만 2000여명의 동포들로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비내리는 무대에서 5000명의 학생들이 빛나는 눈동자와 밝은 웃음, 림름한 모습으로 진행한 노래, 무용, 기악공연들과 어린이들이 즐겁게 노래부르는 천진란만한 모습은 참가자들모두의 커다란 감동을 자아냈으며 이러한 공연은 총련과 우리 학교만이 펼칠수 있다고 누구나 이야기하였습니다.

대축전을 통하여 우리들은 민족교육이야말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시는대로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나가야 할 총련과 재일조선인운동의 생명선이라는것을 더욱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은 조국이 것처럼 어려웠던 시기에 재일조선인운동의 생명선인 우리 총련의 민족교육을 세기를 이어 굳건히 지켜주고 빛내여주시는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영원한 삶의 운인이십니다.

미 래

지난 4월 10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창립 60돐을 맞는 조선대학교 교직원, 학생들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축하문에서 조선대학교가 걸어온 60년의 자랑찬 역사를 긍지높이 총화해주시고 대학교가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면서 민족교육사업은 총련의 존망과 애국위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재일조선인운동의 생명선이며 천하지대본이라고 가르쳐주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에서 우리들은 민족교육사업의 중요성을 천만근의 무게로 받아안게 되였으며 애국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들을 키워내야 할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더욱 깊이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교육의 밝은 미래를 위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사랑과 은정은 또 얼마나 가슴뜨거운것입니까.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 압살책동을 짓부시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진두에서 이끄시는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마음까지 합쳐 우리 총련에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변함없이 보내주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지난 4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민족최대의 명절인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4돐을 맞으며 2억 1880만명의 거액의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또 다시 보내주시었습니다.

잊지 못할 1957년에 첫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받아안던 력사의 그날로부터 어언 59돐을 헤아리는 오늘까지 백두산절세위인들께서 보내주신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은 모두 162차례 걸쳐 일본돈으로 477억 8799만 390원의 막대한 금액에 달합니다.

(4 면 으 로 계 속)

위대한 인민의 모습 다수확농민의 편지

《오매불망 존안뵙고픈 김일성장군님께 올립니다. 옥체만강하시나이까. 전쟁란리에 나라와 백성을 보호코저 불철주야 바치시는 심로 여간치 않음줄로 아옵니다. 제 개성시 덕암리 자작농민 유월성이올시다. 이태전 가을은 가족과 함께 열병을 만나 빈사지경에서 마지막숨을 토포다 장군님덕분에 구사일생 살아난 이 몸이라 서오시로나마 큰절을 올리며 서오면 천벌을 받을것 같아 이 서툰 글월을 바침을 용서해주옵소서. 미국놈들때문에 덮쳐든 국란에 나라가 힘겨워하는 이때 낱알 한토리 변변히 기증 못한 죄만 해도 마음이 무거운데 불효막심한 이놈을 벌할대신 죽음의 막바지에서 구원해 주시옵는장군님의 그 은총 열백번 눈에 흠이 들어간들 잊으오리까.》

한 농민의 진정이 넘치는 편지에는 어떤 사연이 담겨져 있는가.

조국해방전쟁시기인 1951년 11월초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한 영웅전투원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시었다. 내용인즉 영웅전투원의 가족이 진지에서 20리도 되나나한 삼달리마을에 살고있는데 그곳이 적들의 강점지역이어서 갈수 없다는것이였다.

현재 그의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와 일곱식구가 살고있다는 보고를 받으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계시었다. 지척에 그것도 적구에 교향집을 두고 조국을 지켜 싸우는 영웅전사의 심정을 헤아려보시던 그이께서는 단호한 어조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영웅의 가족을 구출해와야 하겠다고, 그러자면 구출전투를 빨리 조직해야 한다고 교시하시었다. 그러시고는 적구에서 영웅의 가족을 데려올 때 집에서 쓰던 가정집물을 다 가져와야 한다고, 로인들은 낡은 농쟁기라 하더라도 자기의 손때가 묻은것을 귀중히 여긴다고 친어버이십정으로 세심히 가르쳐주시었다. 이렇게 되어 전쟁이 려창이던 때 한개 련대의 력량으로 한 전사의 가족을 구출하기 위한 전투가 조직되였다. 자정이 깊은 밤 련대가 출발하여 집주변에 이르러 경계진을 친다음 영웅전사가 방안에 들어가보니 집식구들모두가 열병으로 고열에 시달리고있었다. 아버지는 혼수상태였고 동생들도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즉시 가족들은 전사들의 등에 업혀왔다. 다른 전투원들은 가장집물을 공병마차에 실었다. 온 련대가 감쪽같이 빠져나가는 가족을 호위했다. ... 이렇게 되어 구사일생으로 구원된 가족들은 집중적인 치료를 받고 완쾌된것은 물론 다섯째째 딸인 기와집에다 토지 5 500평을 무상으로 부여받았다. 학교문전에도 못가 보던 동생들은 책가방을 메고 좋아라 덩실덩실 춤을 추며 학교로 갔다.

그러나 죽음의 문어구에 있다가 삶의 락원에 들어선 심정이 어떠했겠는가. 유월성농민이 수령님께 살가 올린 편지에는 이런 사연이 담겨있었다. 그런데 수령님께서 그의 소박한 편지를 보아주시고 친히 답전까지 보내주실줄 어이 알았으랴.

개성시 덕암리 다수확농민 유월성동지에게

나는 당신이 작년도 농산사업에서 온갖 난관과 애로를 극복하고 많은 수확을 쟁취하였으며 특히 당신이 전선의 승리를 위하여 벼 27마니를 전선원호미로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뜻을 표하는바입니다.

당신이 보내주신 전선원호미는 우리의 인민군무장력강화에 기여될것이며 우리의 인민군장병들에게 더 큰 고무가 될것입니다.

당신이 앞으로 다수확을 위한 영농사업에서 더욱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리라는것을 확신합니다.

1953년 1월 29일

김 일 성

황송하게도 한 나라 수령의 친서까지 받아안은 유월성농민은 온 가족과 함께 밤을 지새다 못해 아들에게 편지를 썼다.

내 아들이, 김일성장군님께서 너를 영웅으로 키워주신것만도 분에 겨운데 다 죽었던 우리 가족을 살려주시고 땅에다 집까지 주시고 오늘은 이렇게 답전까지 보내주셨으니 이런 백골난망이 또 어디 있겠느냐. ...

세상에 우리 장군님 같은분은 없느니라. 그런즉 우리 집안은 그분을 받들어 너나없이 심신을 통채로 바쳐야 할줄로 안다. 이 예비가 당부하진대 미국놈을 다 쳐엎어기 전에 아예 집문턱을 넘을 생각일랑 말아라. ...

본사기자 김춘경

(3면에서 계속)
민족교육의 화원에서 씩씩하게 자라나는 제일조선학생들을 대견히 여기시며 해마다 꼭꼭 조국을 방문하도록 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속에서 동포학생들은 조국의 설맞이공연무대를 특색있게 장식하며 자기들의 공지와 자랑을 마음껏 노래할수 있었고 여름철방문의 나날도 의의깊게 보낼수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환없는 사랑과 믿음속에서 우리 민족교육을 받은 졸업생들이 오늘 애국애국의 초소를 대를 이어 지켜섰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오늘 총련의 애국위업을 말살하려는 일본반동들의 책동이 그 어느때보다 우심한 조건에서 제일조선인운동의 명맥을 곳곳이 이어나갈 새 세대들을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한 사업에 커다란 심혈을 바쳐가고계십니다.

지난 8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에 제일조선청년동맹대표단을 불러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뜻깊은 대회장에서 대표단단장을 만나주시고 자신께서는 제일조선청년들을 굳게 믿는다고, 총련의

새 세대들이 애국애국의 전통을 이어 잘 싸워주기 바란다고 최상의 믿음과 신임을 안겨주시었습니다.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주체의 청년운동사에 길이 빛날 력사적인 대회가 끝난 후 열광의 환호성이 하늘명을 진감하는 기념촬영장소에서 또다시 제일조선청년동맹대표단 단장을 뜨겁게 포옹해주시고 대표단성원들모두와 함께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환하신 모습은 우리들의 심장을 세차게 울려주었습니다.

태양의 열과 정으로 안아주시고 창창한 미래를 축복해주시며 그리도 밝은 미소를 지으시는 위대한 아버지의 모습에서 우리들은 참으로 심원한 사랑과 믿음의 세계를 받아안았습니다.

그 사랑에는 민족교육의 화원에서 자라난 총련의 새 세대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만을 따르며 만물을 헤쳐온 전세대들처럼 혁명의 바통, 애국의 계주봉을 꿰맞추어 이어나가는 제일조선인운동의 기동감들로 역세계 자라나기를 바라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기대가 어려웠습니다.

참으로 송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으로 언제나 제일조선학생들의 교육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마음까지 합쳐 민족교육사업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모든 사랑과 은정을 다 돌려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은 우리 총련과 제일동포들의 위대한 스승, 위대한 령도자이십니다.

우리 총련은 중등교육실시 70돛이 되는 올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민족교육사업에 큰 힘을 넣어 전조직, 전동포들이 떨쳐 일어나 민족교육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제일조선인운동의 초석을 억척으로 다져나가는 우리 민족교육의 미래는 끝없이 밝고 창창합니다.

하기에 저는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민족교육의 70년 력사를 긍지높이 돌이켜보며 철세의 위인을 모시여 우리 민족교육의 화원을 영원히 만발할것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필자는 제일조선인교육회 회장임)



제일조선청년동맹대표단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참관

《통일신보》가 만난 사람들

전도유망한 세계적인 탁구명수

— 압록강체육단 탁구선수 김송이 —

지난 8월 브라질의 리오 데자네이로에서 성황리에 열린 올림픽경기대회는 막을 내렸으나 격정과 흥분으로 깊은 여운을 남긴 패승의 순간들, 그 주인공들에 대한 일화는 지금도 전해지고있다. 그중에는 처음 올림픽무대에 출전하여 탁구강자대렬에 당당히 들어선 조선의 김송이(22살)선수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 고마운 조국의 품속에

서 세계적인 탁구명수로 자라난 그를 《통일신보》가 만났다.

수처럼 탁구로 조국을 빛내이고싶은 열망은 꺼질줄 몰랐습니다.》

를 뿜내는 탁구강자였다. 반면에 올림픽에 처음 출전한 김송이선수는 국제탁구계에 알려지지 않은 신진선수였다.

어느 한 외신도 《김송이선수가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엎었다. 그의 깎아치기수법에 세계적인 탁구강자들이 련속 무릎을 꿇었다.》고 썼다.

대로 단수높고 변화무쌍한 우리 식의 경기전법들을 련마한다면 얼마든지 세계적인 강자들을 타승할수 있음을 폐부로 실감한 김송이선수이다.

어린 소녀의 꿈

기자가 압록강체육단 탁구선수로 활약하고있는 김송이선수를 만나기 위해 찾은 훈련장을 환근 달아있었다. 기자와 만난 김송이선수의 감동 깊진 명은 곧 있게 될 제13차 인민체육대회를 앞두고 탁구선수들이 맹훈련을 하고있다고 말해주었다.

1등. 2013년 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 탁구 여자단식경기에서 1등. 2014년 공화국선수권대회 탁구 여자단식경기에서 1등. 2016년 백두산상체육경기대회와 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 탁구 여자단식경기들에서 1등.

그런 김송이의 뛰어난 소질을 발견한 소학교 탁구소조교원들의 지도를 받으며 그는 평양시적인 소학교탁구소조경기에서 1등을 쟁취하였다. 그후 서성구역청소년체육교를 거쳐 압록강체육단 탁구선수로 소환된 그의 탁구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높아갔다.

경기전부터 승패의 저울추는 일본선수쪽으로 기울어진듯싶었다. 하지만 이날 경기에서 진땀을 뺐은것은 일본의 후쿠하라 아이선수였다.

한다하는 강자들이 모여 승부를 다투는 올림픽경기대회에서 22살의 신진선수 김송이가 세계가 다 아는 유명자인 탁구명수로 떠올랐던것이다.

어머니조국은 이번 올림픽경기대회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둔 자랑스러운 아들딸들을 뜨겁게 포옹해주었다. 아들이 별게 안겨지는 꽃다발들과 꽃목걸이, 성대한 국가연회, 가는 곳마다 쏟아지는 축하의 인사... 온 나라가 돌아오는 선수들에게 축하도 가득, 기쁨도 가득 안겨주며 실례였다.

온몸을 땀으로 적시며 훈련에 여념이 없는 선수들속에 김송이선수도 있었다. 방해가 될가싶어 기자는 한동안 그의 훈련모습을 지켜보았다. 이제는 몸이 폭 배고도 남았을 깎아치기 동작이나 무려 수백번, 걸어치기 동작이나 처넣기 훈련들도 수십, 수백번...

훈련의 철참 기자는 김송이 선수를 만나 탁구선수로 성장해온 과정에 대해 들을수 있었다. 평양시 평천구역의 평명한 로동자가정에서 태어난 김송이는 소학교시절부터 탁구에 취미가 남달랐다고 한다.

성격이 쾌활한 그는 원래 방 어보다 공격을 더 좋아했다고 한다. 압록강체육단의 감독들은 김송이선수가 위력한 깎아치기와 결합된 반공격특기를 잘 살리면 얼마든지 세계적인 탁구강자가 될수 있다는것을 포착하고 그에 맞게 훈련지도를 심화시켰다. 김송이선수에게는 휴식날, 휴식시간이 따로 없었다. 품들어 련마한 특기기술은 마침내 빛을 보기 시작하였다.

《조선의 김송이는 이번 올림픽 탁구여자단식에 나타난 제일가는 (검은 말)이었다. 경기전 과정에 김송이는 확고한 우세를 차지하였다. 세계 순위 50위에 있는 김송이가 세계 순위 8위에 있는 후쿠하라 아이를 이겼다.》

《1996년 올림픽경기에서 일본의 〈국보〉 다무라 료코를 타승하고 세계패권을 쥔 계승회선수처럼 일본선수들을 모조리 항복시키자. 이겨도 통쾌하게! 이것이 저의 꿈이었습니 다.》

《얼마전 출판물을 통하여 우리 선수들이 축하의 꽃다발을 물려줬을 때 미국선수들이 겪은 불행에 대한 기사를 읽으면서 생각되는것이 많았습니다.》

전형적인 방어수인 그의 주되는 특기는 깎아치기이다. 그가 경기과정에 발휘하는 능란한 깎아치기수법이 이렇듯 부단한 반복훈련과정에 이루어진것임을 새삼스럽게 절감하였다. 그런 기자에게 김진명감독이 김송이선수로 말하면 나이는 많지 않아도 전도유망한 탁구선수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주었다.

《부모님들은 녀자가 체육을 해서 뭘하겠는가, 공부나 잘하라고 만류했지만 박영순선

히성처럼 등장한 선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이번 올림픽 탁구 여자단식 경기에서 일본의 이시카와 가스미선수를 가볍게 누른 김송이선수가 맞닥튼 상대는 일본의 후쿠하라 아이선수였다. 10년전부터 올림픽무대에 진출한 전적을 가지고있는 후쿠하라 아이로 말하면 기술적우위

《조전의 김송이는 이번 올림픽 탁구여자단식에 나타난 제일가는 (검은 말)이었다. 경기전 과정에 김송이는 확고한 우세를 차지하였다. 세계 순위 50위에 있는 김송이가 세계 순위 8위에 있는 후쿠하라 아이를 이겼다.》 그의 경기를 본

《타고난 재능은 있어도 키워주는 꿈이 없어 설움에 몸부림치고 땀흘려 메달을 따내도 그 대가를 물어야 하는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사회에서 태어났더라면 오늘과 같은 영예와 행복을 어찌 생각이나 할수 있었습니까.》

《다음에 열리는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하여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만방에 떨쳐주었다며 또다시 훈련장으로 향하는 그를 바라는 기자의 마음은 후더웠다.》

본사기자 홍범식



핵강국을 함부로 전드리지 말라

최근 공화국을 노린 내외호전광들의 무분별한 선전활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의 정세는 언제 전면전쟁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최악의 지경으로 치닫고있다.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이 남조선의 동해와 서해, 남해의 전해역에서 벌여놓은 《2016 불꽃의 리지》라는 사상최대규모의 해상합동군사연습이 바로 그 일환이다.

내외호전광들은 이번 합동군사연습이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무력시위》라느니, 연습의 목표가 《정밀선제타격》에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

이것은 공화국에 대한 전례없는 군사적도발행위로서 가뜰이나 긴장한 조선반도정세를 최극단으로 몰아가는 위험천만한 불장난이 아닐수 없다.

지난 시기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이 각종 명목으로 여러차례의 해상합동군사연습을 벌여놓았지만 이번처럼 규모와 장비, 훈련내용과 형식이 있어서 침략적이며 모험적인 전쟁도발소동은 일찌기 없었다.

남조선의 전해역에서 벌여진 이번 연습에는 핵항공모함 《로날드 레간》

호와 이지스구축함 등 합정 50여척과 항공기, 전략폭격기, 직승기를 비롯한 방대한 선제타격수단들이 참가하였으며 연습내용도 해상무력억제, 대지정밀타격훈련, 항공모함호송작전 등 공화국을 불의에 타격하기 위한 위협천만함으로 일관되었다.

특히 이번 연합해상연습은 바다에서 공화국의 전략적중심과 중요거점들에 대한 선제적인 《정밀타격》을 벌이며 기습적능력을 숙달하기 위한 데 중점을 둔 매우 위험천만한 전쟁연습으로서 지난 6일과 7일에도 판도의 앤더슨공군기지에 등지를 천만함 연습이었다.

동, 서, 남해상에서 핵동력항공모함 《로날드 레간》호가 주축이 되어 진행한 《지상목표정밀타격훈련》은 이 연습이 얼마나 호전적기사를 잘 말해준다.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우는 항공모함을 비롯한 각종 함선들에 배치된 순항유도무기와 함재기들로 공화국의 전략적인 핵시설들과 로켓트기지를, 지어 공화국의 최고수뇌부를 정밀타격하는 형식으로 진행된 《지상목표정밀타격훈련》은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호전광들의 복집선제타격광

기가 위협수위를 넘어 폭발직전에 이르렀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문제의 심각성은 비단 여기에만 있는것이 아니다.

지금 공화국의 핵능력 강화조치에 겁을 먹은 내외호전광들은 《대북선제타격》이요, 《외과수술식 선제타격》이요 뉘오 하면서 핵전략폭격기와 핵전략잠수함을 비롯한 핵전략자산들을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끌어들이고 놓고 공화국에 대한 불의적인 선제타격을 노린 복집전쟁연습을 매일과 같이 벌여놓고있다. 지난 6일과 7일에도 판도의 앤더슨공군기지에 등지를 천만함 연습이었다.

이에 뒤이어 벌어진 무모한 해상합동군사연습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가뜰이나 불안정한 조선반도정세를 최악의 위기로 몰아넣는 엄중한 군사적도발행위로서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오죽하면 한 외신도 《북은 평온하지만 (한)미랑국의 모습은 도발적》이라고 하면서 《조선반도정세에서 (한)미의 도발적인 자세가 더 분명해 보인다.》며 비난을 퍼부었겠는가.

현실은 오늘 조선반도

에서 평화를 파괴하고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려고 책동하는 장본인, 침략적인 호전광들이 과연 누구인가를 여실히 증명해주고있다.

하지만 호전광들의 무모하고 객기적인 전쟁소동에 추호도 놀랄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이 아니다.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해치려는 적대세력들의 도발과 복집전쟁소동을 절대로 묵과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하려는 것은 공화국의 단호한 립장과 의지이다. 공화국은 이미 미국이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피려는 이 상 나라의 최고리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침략자들의 본거지들에 대한 핵선제타격권리를 행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엄숙히 천명하였다. 만일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이 무모한 선제공격의 사소한 움직임이라도 보인다면 공화국군대의 즉시적이고 무자비한 핵복타격앞에 상상할수 없는 가장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될것이다. 내외호전광들은 시대착오적인 망상에 들떠 동방의 핵강국, 불패의 군사강국으로 우뚝 솟은 공화국의 군사적위력을 저울질하려들지 말아야 한다. 불을 즐기자는 불에 타죽기마련이듯이 현실을 무시한 경거망동은 돌이킬수 없는 재난과 자멸을 초래할뿐이다.

본사기자 김철호

맥빠진 제재구걸놀음

얼마전 남조선에 유엔주재 미국대사라는 자가 날아들었다. 이를 두고 남조선의 정치매춘부들이 또다시 구린내나는 몸뚱이를 움직이며 저마다 달라붙어 별의 별 아양과 양말을 다 부렸다.

사리사욕과 집권유지, 동족대결을 위해서는 제 몸뚱이는 물론 민족의 생존권마저 마구 팔아먹는 회색의 정치매춘부무리, 박근혜당파의 본성이 나온것이다.

미국에 빌붙어 살아가는데 습관된 이들은 저마다 미국대사를 꼬드기며 《대북제재만이 출로》라느니, 《한걸음만 더 나가면 결과가 있을것이다.》느니, 《확실한 공조를 약속해달라.》느니 하고 빌붙었다.

보기에도 역겨운 비굴한 대미의존굴종추태가 아닐수 없다. 지금 미국은 저들의 초강도제재와 압박에도 굴함없이 자신들이 정한 길로 곧바로 나아가며 승리를 새겨가고있는 공화국의 힘찬 전진에 걸걸하여 전전공공하고있다.

미국내에서도 북조선위협론이 널리 퍼지고 《북조선과의 타협안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대조선정책의 방향전환이 시급한 때》라는 주장들이 공개적으로 울려나오고있다.

미국을 철석같이 믿고있는 남조선의 친미굴종세력으로서 당황망조하지 않을수 없다. 하늘같은 미국상전을 믿고 《정권》위기, 경제파란, 외교적고리를 무릅쓰고 동족대결에 광분하여왔는데 그 상전이 무너져앉으면 갈곳 없는 저들은 제명을 다 산것이나 같기때문이다.

한번만 더 하고 제재를 아무리 구걸하더라도 이미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총파산에 직면한 미국상전인들 무슨 뽕족한 대책이 있을수 있겠는가. 제재와 압박, 군사적위협을 비롯한 그 어떤 방법과 수단으로써도 공화국을 굴복시키질수 없다는것이 이미 명백한 진리로 되었다.

제아무리 온갖 교태를 다 부리며 상전에게 매달려 제재와 압박을 구걸해도 끈땀어린 조롱박신세밖에 되지 않는다는것을 박근혜역좌매당은 똑똑히 명심해야 할것이다. 동족대결에 이끌리 난 정치매춘부들의 더러운 잔병도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혜성

세계최악의 인권모략소굴, 세계최대의 인권범죄국인 미국이 반공화국 《인권》소동에 더욱 열을 올리고있다.

지난 9일 남조선에 날아든 유엔주재 미국대사라는 자는 《하나리》에 나타나 그 무슨 《고통》이니, 《아이들보다 무기를 키우는 정부》니 뉘니 하면서 공화국을 악랄하게 헐뜯었다. 그런가하면 《탈북민대안학교》니, 《북인권단체대표》 집이니 하는 오물장들을 런이여 찾아가 《북인권》이 어쩌니저쩌니 하는 나발질도 늘어놓았다.

미국무부 인권특사라는 자도 이에 뒤질세라 남조선에 날아들어 《유엔총회에서 북인권결의안추진을 위해 의견을 조율해야 한다.》느니,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느니 뉘니 하고 공개적으로 떠

들어대면서 남조선보수집권세력과 측덕공론을 벌여놓았다.

얼마전 미국무성이 대조선 《인권, 책임추궁, 정보접근》에 관한 《현상응용》라는것을 공식하고 그 계획실현에 수백만US\$를 할당할것이라고 요란스레 광고한 사실만 놓고보아도 미국의 반공화국 《인권》모략소동이 얼마나 극도에 달했는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다.

이것은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국력앞에 기절초풍한자들의 단말마적인 추태에 불과하다.

병진의 기치높이 핵억제력을 백방으로 다지고 새로운 비약과 번영의 만리마시대를 펼쳐가는 공화국은 전대미문의 군사적압박과 제재책동으로

대결에 미친 악마의 추태

공화국의 핵무력강화가 적대세력들의 가증되는 핵위협과 침략으로부터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지극히 정당한 자위적 조치로 된다는것은 세상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유독 박근혜만이 이를 《상습적인 도발》이니, 《위협》이니 하고 또다시 걸고들었으니 대결에 미친 악마가 아니고 서야 어떻게 입만 터지면 이따위 나발을 계속 불어댈수 있겠는가. 사실 《도발》과 《위

협》에 대해 말한다면 조선로동당창건기념일을 맞아 온 나라가 명절분위기에 휩싸여있던 10월 10일 전해역에서 대규모해상합동군사연습을 벌여놓고 전쟁분위기를 고취한 미국과 박근혜당파가 아니겠는가. 그런데도 그 누구의 《도발정후》니 뉘니 하고 공화국을 걸고들고있으니 이거야말로 지나가던 개도 웃을 켜변인것이다.

이번에 박근혜가 《도발》이니, 《위협》이니 하고 또다시 허튼 나발을 불어댄 리유는 다른데 있지 않다. 그것은 분노한 민심의 화살을 판데로 돌리고 심각한 통치위기에 서 어떻게 하나 벗어나보자는데 있다.

다 아는것처럼 시대착오적인 대결정책에 매달려 조선반도정세를 최악의 상태로 몰아간 박근혜당에 대한 남조선 각계층의 비난과 분노는 최고조에 달하고있다. 특히 남조선을 핵전쟁의 도가니에 끌어들이는 도화선이라고 할수 있는 《싸드》배치를 반대하고 련속 터져나오는 청와대와 련결된 각종 부정추문사건들에 반인민정책을 규탄하는 각계의 항의투쟁 등으로 박근혜당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위기에 빠져있다.

이번에 박근혜가 저들의 대결망동에 우려를 표시한 야당을 비롯한 남조선 각계의 비난과 공공모조를 비롯한 노동자대중의 정당한 파업투쟁을 《사실과 다른 외곡》이라느니, 《리기적

행태》니 하고 몰아댄것만 보아도 얼마나 급해하는가를 잘 알수 있다.

아마도 박근혜는 심각한 통치위기에 벗어나는 유일한 출로가 무모한 동족대결과 파쇼독재강화에 있다고 본것 같은데 파시 《유신》독재자의 피를 이어받은 《유신》광너다운 생각이라 하겠다.

미국은 바로 여기에 있는것이다. 공화국은 미국도 감히 어찌지 못하는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이다.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는 인민사랑의 정치가 펼쳐지고있기에 공화국의 정치체제는 최대 안정되어있고 굳건하다.

이런 공화국의 현실을 보지 못하고 아직도 《북붕괴》의 허황한 망상에 사로잡혀있기에 조국을 배반하고 도주한 몇 안되는 인간쓰레기들을 놓고 《먼저 온 통일》이니, 《통일의 시험장》이니 하는 따위의 나발도 망신스러운줄 모르고 불어댄것이다.

충고하건대 박근혜는 정의가 부정을 이기고 애국이 매국을 타승하며 통일이 반통일을 이기는것이 어길수 없는 력사의 필연이라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친대사대와 동족대결에 미친 박근혜따위가 아무 리악철을 돌구며 미친 발악을 해도 공화국을 추호도 흔들지 못하며 온 겨레의 지향에 역행하는 대결광신자들은 반드시 민족과 력사의 준엄한 심판대에 서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류현철

가소로움에 쓴웃음 짓는다

가련하게 놀아내고있는것이다.

존재하지도 않는 《인권》문제를 지어내서라도 존재높은 공화국의 영상을 기어이 깎아내리려는 미국의 추악하고 비렬한 음모책동은 상식을 벗어 나고있다.

그러나 미국의 진부한 대조선 《인권》소동의 허위성과 기만성은 이미 세계의 면전에서 적라라하게 드러났다.

세상이 다 아는 《탈북자》거짓증언사건과 《미국인대학생랍치》설이요, 《해외근로자인권유린》설이요 하는 갖가지 모략극들의 허황성이 계속 드러나고있는 사실이 그를 증명해주고있다.

제17차 블랙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를 비롯한 국제무대들에서 미국의 《인권》소동을 규탄하고 공화국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고 울려나오고있는것은 필연적이다.

남을 속이는데 이끌이 난자는 제가 놓은 덫에 제가 걸리기마련이다.

지금 세계 진보적나라들과 인민들은 주권국가들의 자주권을 무참히 짓밟고 평화적주민들에 대한 대량살륙과 비인간적

인 고문만행을 비롯한 온갖 인권범죄를 다 저지르고도 뼈저티 《인권재판관》행세를 하고있는 미국을 국제법정우에 올려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합치고있다.

피부색같이 검다고 하여 총으로 마구 쏘아죽어도 무방한 인종주의가 극심한 사회, 사람들의 사생활도 거리낌없이 감시하는것과 같은 극심한 인권유린행위들이 란무하는 사회가 바로 미국이다. 세계인권유린왕국으로 악명을 날리는 미국이 그 무슨 《북인권》문제를 떠들며 공화국을 어찌보겠다고 웅소리를 치지만 세계는 거기에 쓴웃음만 짓고있다.

미국은 지금 자신들이 얼마나 가소롭게 놀고있는가를 리성적인 사고로 돌이켜보는것이 현명한 처사일것이다.

본사기자 김명성

《청와대 핫바지》가 또 있다

피한 일이 벌어졌다. 명목상으로는 《국회》의장이 《정치적중립》의무를 어기고 야당에 동조하였기때문이라는것인데 진짜 속심은 그게 아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을 막아냄으로써 《지나도》 하기가 하늘같은 집권자의 《권위》를 지켜보겠다는것이였다.

박근혜의 추파에 넋을 빼앗긴 반편을 방불케 하는 그의 단식놀음이 얼마나 창피한것인지 사람들이 닭살이 다 돋을 지경이였지만 《정세균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끝장을 볼

것》이라고 큰소리를 치던 그가 불과 단식 7일만에 제 먼저 《백기투항》하고 병원에 실려가는 꼴이 되고말았다.

이뿐이 아니다. 지금 《국회》의 《국정감사》장에서 《새누리당》이 부리는 추태 또한 가관이다.

야당들은 이번 《국정감사》를 《우병우구감》, 《미르재단구감》으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각종 상임위원회들에서 이 사건들의 진상을 적지않게 파헤치고있다. 뿐만아니라 드러난 집권자의 퇴임후

거처지문제, 백남기농민사망사건, 《세월》호참사, 경주지진, 청년실업, 가슴기살균제폐해문제, 무모한 동족대결정책 등 악정의 실패들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현 《정권》의 무능력과 책임을 강하게 추궁해나서고있다.

그런데 《새누리당》 패거리들은 《국회》의장이 사퇴할 때까지 《불참》하겠다고 떠들었다가 여론의 못매를 맞고 겨우 《국회》에 기여들어와서 《폭로전》이니, 《정치공세》니 하면서 사건관계자들에 대한 증인출

석을 사사건건 방해해나서는가 하면 집단퇴장하사, 《국정감사》를 파행시키는 등 별의별 못된짓을 다하고있다.

따지고보면 《새누리당》은 이미 오래전에 박근혜의 눈치만 보면서 그의 밀셋개노릇이나 하는 《사당》으로 록 전략해버리었다.

하기에 남조선 각계에서 《박근혜의 독사같은 기질에 명색이 집권여당이라고 하는 《새누리당》이 아예 추물이 되고말았나》는 비난과 조소가 울려나오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박철남

친미사대와 동족대결로 세상 못된것만 골라하다가 이제는 다 죽게 되어 송장냄새가 풍풍 나는 박근혜를 감싸안다가 민심의 못매를 맞고 만신창이 되버린 《새누리당》의 비참한 몰골이야말로 제대할 제가 받는다는 격언을 떠올리게 한다.

남조선인민들이 조롱하며 쓰는 《청와대 핫바지》라는 말은 통일부말고도 명랑구리 《새누리당》에도 꼭 어울리는 말이다.

민심은 이미 만고역적 박근혜와 함께 《새누리당》이라는 반역당에도 준엄한 파멸심판을 내린지가 오래다.

본사기자 박철남

까마귀 하루 열두번 울어도 까옥소리뿐이라는 말이 있다.

속껍은 높이 아무리 지껄어도 좋은 소리가 없다는 뜻이다.

남조선의 박근혜 《정권》이 불어대는 《북인권》 타령이 꼭 까마귀소

인권에 비친 두 얼굴

《비상사태》라는 한마디 말에도

권기록보존소》 개소식이 라는 대결광대무대에서 《존엄성과 자유권의 침해》, 《건강권, 교육

한마디만 파헤쳐보자. 지금 공화국의 북부지역에서는 자연재해를 가시기 위한 국가적인 전투

치며 자기 모습들을 드러내고있다.

—인민의 아픔보다 더 큰 비상사태는 없다. —

—인민의 불행을 가세 주는것보다 더 중차대한 사업은 없다. —

억만금을 쏟아붓고 나라의 재부를 통채로 기울여서라도 당장 들이닥칠 엄혹한 강추위에 인민들을 고생시키지 않으려는 인민사랑의 정치가 낳은 감동깊은 화폭이다.

인민의 아픔을 가장 큰 비상사태로 여기는 이런 고마운 정치하에서 《인권문제》란 애당초 말도 되지 않는다.

반면 남조선은 어떠한가. 집권자의 입에서도 최근 《비상사태》라는 말이 튀어나왔다.

문제는 그 《비상사태》가 동족의 정정당당한 혁명적력강화조치때문에 산생되고있는듯이 궤변을 늘어놓은것이다. 여기에는 남조선인민들의 생명안전과 존엄과 리익을 지키려는 마음은 꼬물만큼없고 순수 《안보위기》를

조성하여 독재권력의 극도에 이른 통치위기를 수습해보려는 더러운 목적만이 꿈틀거리뿐이다.

역도가 집권해서 오늘까지 언제 한번 남조선인민들을 생각해준것이 하나라도 있는가. 귀퉁한 돈을 끌어내기 위해 재벌들만 살찌우고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 물대포를 쏘대며 짓밟아대고 수백명의 아이들이 탄 배를 바다에 가라앉게 만들고도 눈물 한방울 안 흘린 닭그네이다.

제년의 말은 곧 법이고 그에 반항하면 《중복》으로 몰아대고 그 누구를 막론하고 가차없이 물어메치는 살인폭력정치하에서 남조선인민들은 기를 펴고 살지 못하고 탈남행

렬, 자살행렬에 저마다 들어서고있다. 제년이 미국상전과 배짱을 맞추고 만 들어낸 《싸드》 배치결정을 남조선 각지의 주민들이 결사반대항의하는데도 가만있으라며 끝까지 밀어붙이는 역도의 전횡은 미국을 살리기 위해 남조선인민들을 《싸드》의 제물로, 국적불명의 핵탄우에 물대포를 쏘대며 짓밟아대고 수백명의 아이들이 탄 배를 바다에 가라앉게 만들고도 눈물 한방울 안 흘린 닭그네이다.

제년의 말은 곧 법이고 그에 반항하면 《중복》으로 몰아대고 그 누구를 막론하고 가차없이 물어메치는 살인폭력정치하에서 남조선인민들은 기를 펴고 살지 못하고 탈남행

렬, 자살행렬에 저마다 들어서고있다. 제년이 미국상전과 배짱을 맞추고 만 들어낸 《싸드》 배치결정을 남조선 각지의 주민들이 결사반대항의하는데도 가만있으라며 끝까지 밀어붙이는 역도의 전횡은 미국을 살리기 위해 남조선인민들을 《싸드》의 제물로, 국적불명의 핵탄우에 물대포를 쏘대며 짓밟아대고 수백명의 아이들이 탄 배를 바다에 가라앉게 만들고도 눈물 한방울 안 흘린 닭그네이다.

《비상사태》라면 제년의 악정과 무능, 친미굴종과 동족대결로 하여 인민들이 당하는 이런 참혹한

불행과 재난들이 응당 속해야 하지 않는가.

그러나 인민을 등지고 권력의 안위와 퇴임후의 재집권, 제살공리에만 팔물하는 역도에게 이같은것이 안중에도 있을수 없다. 그저 동족만 터무니없이 핍박하며 분노한 민심의 이목을 다른데로 돌리려 한다.

《비상사태》라는 말 한마디에도 얼마나 북과 남의 크나큰 차이가 담겨있는가. 그것은 인민을 제일로 위하는 정치와 인민을 개, 돼지쯤으로 여기는 살인폭정의 판이한 두 차이이다. 《북인권》 타령이 실재없이 울려나오는 남조선은 인권왕국-북의 발바닥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권지옥에 지나지 않는다.

본사기자 김정혁



보름동안에 4개 호동의 5층살림집골조공사 완성 - 북부지구 피해복구전투장에서 -

리이다. 남조선을 인권황무지, 인권사막지대로 만들어놓고도 그 주제에 공화국의 참다운 인권에 대해 짚고 까불고 하니말이다. 얼마전에 열린 《북인

권》, 《인권의 심각성》하는 따위의 개나발들이 울려나왔다. 개구리 배짱떨어졌다는 소리도 이보다 황당하지는 않을것이다. 《비상사태》라는 말

가 벌어지고있다. 인민군대가 앞장서서 방대한 건설력광과 자재, 생활필수품들이 북부지역으로 집중되고 폐허로 된 집터전들마다에 황홀한 새 집들이 선경을 펼

《우리가 백남기다》, 《부검 절대반대》

서울에서 백남기 농민추모집회 진행

남조선신문 《한국경제》에 의하면 얼마전 백남기투쟁본부가 서울에서 백남기 농민추모집회를 가지었다.

3 000여명의 단체성원과 시민들이 집회에 참가하였다.

그들은 반인민적인 파쇼 《정권》을 뒤집어엎지 않으면 남조선인민들모두가

백남기농민처럼 될수 있으며 그의 피맺힌 한을 기어 이 풀고야말겠다는 자기의 뜻과 의지를 담아 《우리가 백남기다》, 《부검 절대반대》 등의 구호들을 힘차게 웨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파쇼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숨진 백남기농민의 시

신을 부검하려는 검찰, 경찰의 시도는 폭력이라고 규탄하였다.

그들은 아무런 무장도 없는 농민을 공격하여 사망하게 하고도 시신을 빼앗아 부검하려는 행위에 격분을 금할수 없다고 토로하였다.

이러 참가자들은 당국의 폭압만행에 항의하는 시위행진을 진행하였다.

본사기자

피해자유가족들이 응당한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그들은 경찰의 폭압에 맞서 더욱 힘차게 싸울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이러 참가자들은 당국의 폭압만행에 항의하는 시위행진을 진행하였다.

본사기자



故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정정촉구 및 서울대병원 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

《퇴임할 때가 됐구나.》

최근 남조선에서 물의를 빚고있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사건을 두고 각계에서 울려나오는 비난의 목소리중의 하나이다.

기업의 팔을 비틀어 마련한 모금, 무리한 재단설립 과정, 《비선실세》의 움직임

폭로된 사실자료에 의하면 박근혜는 퇴임후 제가 살 집마련을 위해 역대 남조선집권자들에 비해 가장 많은 67억 6 700만원을 예산으로 조성해놓고 그것도 안심치 않아 정보원까지 동원시키고있다고

민심의 눈을 피해가며 살아갈 돈주머니를 불쿠고 거처할 주택을 마련하는 등 온갖 파렴치하고 추악한짓을 다하고있다.

청와대민정수석비서관 우병우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에 대한 야

정치자금, 기부자금을 마련하려고 만들어놓은 유령같은 부패단위들이 얼마나 되겠는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이런 시꺼먼 속통을 가지고도 역도년은 《한강의 기적》이니, 《창조경

지옥의 끝의 달리기

입술이 부르르고 링계르를 맞으면서까지 악을 쓰며 달리는 정치 《주로》를 회상해보는데 이 노래만큼 적절하고 신통한것이 없어서일것이다.

제 뜻대로 되는것이란 하나도 없고 련속 겹쳐드

민생폐허지대, 인간생지옥으로 만들어놓은 박근혜가 죄의식은 꼬물만큼도 없이 퇴임후 재집권 실현과 제살공리에만 눈이 달려서 돌아가고있으니 이런 무도하고 파렴치한 악역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박근혜와 같은 《유신》독재자의 후예, 천하의 백치, 사치와 방탕에 들떠있는 추물이 지금도 권력의 자리에 앉아있는것이야말로 남조선인민들에게 있어서 수치고 불행이 아닐수 없다.

《레임덕》(《정권》)의 지도력이 떨어지는 현상은 가을바람처럼 와있다.》는 남조선 각계의 주장대로 박근혜독재 《정권》의 종말은 눈앞에 다가왔다.

본사기자 김응철

는 내우외환으로 지칠대로 지친 박근혜의 가공한 처지를 이 노래가 잘 보여 주고있다.

박근혜는 무엇을 위해 달려왔는가?

민심을 역행한 박근혜의 《달리기주로》에 악행의 표말들이 언뜻언뜻 보여온다.

《유신》독재부활과 전 시작전통제권연기, 《국민대통합》의 간판과 바뀌치운 《국민불행》, 《세월》호참사에 꼬리를 이

은 대형악재. 결국 《민생파탄주로》를 내달려 남조선을 《헬조선》, 《탈조선》의 케도우에 올려세운것이 박근혜가 이루어놓은 《치적》이다.

《천미, 친일사대의 주로》를 내달려 《싸드》의 남조선배치, 일본과의 굴욕적인 《군위안부 합의》로 온 겨레의 지란을 받고있고 《동족대결의 주로》를 내달려 북남관계의 완전파탄을 가져온 박근혜역도.

어디 그뿐인가. 부패로 얼룩진 박근혜의 《달리기주로》에서는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의 악취가 풍겨오고 우병우, 김재수와 같은 《비리》의 온상들이 서식하고있다.

달리기선수들은 결승선을 향해 내달린다.

달리기선수가 당도할 결승선에는 월계관이 있지만 박근혜가 당도할 《달리기》 종착점에는 파멸과 죽음이 기다리고있다.

박근혜는 자기가 《달리기》라는 노래를 즐겨 부르는것은 입술이 마르고 힘들지만 이미 시작했으므로 중간에 그만둘수 없으며 끝까지 달려가는 내음이 자기 마음과 같다니,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일에 시간을 할애하지 않겠다니 하고 장광설을 늘어놓았다.

이것은 누가 어떻게 자기를 비난하든 개의치 않고 민의에 끝까지 역행하여 저 하나만을 위한 파쇼와 동족대결, 사대굴종의 케도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는 청와대악녀의 심경의 토로이다.

그러나 그 범죄적인 주로의 끝은 역도가 가장 비참한 파멸의 운명을 선고 받는것으로 될것이다.

죽음을 예고하는 《달리기》라는 노래도 그것을 예언하고있다. 박근혜는 오늘도 청와대안방에서 이 피상한 노래를 부르며 자기 파멸을 부를 미친 달리기를 계속하고있다.

달리고 달릴수록 죽음은 박근혜에게 가까이 다가오고있다.

본사기자 리경월

남조선인민들은 못살겠다고 아우성치는데

한다. 이뿐이 아니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억지로 성사시킨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첫 특혜 기업이 박근혜 사촌언니의 남편이 운영하는 동양물산기업이라는것이 폭로되어 사람들을 또다시 경악시켰다.

지금 박근혜는 《개헌》을 통해 일본의 아베처럼 권력을 다시 잡아보려는 개꿈을 꾸는가 하면

당들과 각계층의 해임요구를 한사코 거부하는것도,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 측근줄개들을 《국회국감감사》에서 제년의 뜻대로 움직이게 몰아대는것도 이러한 흥계를 실현해보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역도년이 차후 재집권을 위해 우병우, 김재수처럼 손때묻혀 요직들에 박아놓은 측근들과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과 같이

제》니 뭐니 하며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격으로 민심을 조롱하고있다.

지금 남조선민생은 도란에 빠져있다.

자살자수에서의 1위, 날로 늘어나는 《국적》포기자 와 꼬리를 물고 늘어나는 이민자행렬은 인간으로서 살래야 살아갈수 없는 비참한 남조선실상을 보여주는 자화상이다.

은 남조선땅을 사상최악의 파쇼독재란무장,



만평 갈수록 험산. 숨이 턱까지 차고 입안이 바빠 달라도 눈물나게 억울해도 끝난뒤엔 지옥에서 오래살수 있다는것 그걸로 내겐 충분해! 박남기농민사건, 우병우사건, 싸드배치, 미르, K스포츠재단, 초리

